

기록관리표준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Analysis of Korean Research Trends on Records Management Standards

허수진 (Sujin Heo)*

최상희 (Sanghee Choi)**

초 록

이 연구는 국내 기록관리표준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이를 위해 기록관리표준 관련 논문의 표제-주제어-초록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상위빈도 키워드의 분석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이며 RISS와 ScienceON 등의 국내 학술논문 검색사이트에서 총 212편의 논문을 수집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2000~2010년까지는 아카이브 설계를 위한 OAIS의 연구, OAIS를 통한 디지털 기록 보존연구 ISO 표준의 분석 연구 등이 주로 진행되었고, 201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기록경영인증, ISAD(G)의 RiC 전환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기록관리표준 연구의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연구 흐름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기존 기록관리표준을 연구할 때 참고자료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and collect research trends of archival management standards in Korea. For this purpose, keywords from the titles, author keywords, and abstracts of papers related to records management standard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to investigate the major keywords with high-frequency. Network analysis with high frequency keywords was also conducted to identify the subject areas of research in archival management standards. The analysis period is from 2000 to the present, and a total of 212 papers were collected from domestic academic paper search sites such as RISS and Science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rom 2000 to 2010, OAIS for archive design, digital record preservation with OAIS, and analysis on ISO standards were mainly conducted in research areas. From 2011 until now, records management certification and ISAD(G)'s conversion to RiC emerged as new research areas. This study will be expected to be basic data to understand research trends in records management standards in Korea and to be a reference for research on records management standards studies.

키워드: 기록관리, 기록관리표준, 기록 메타데이터 표준, ISO 기록관리 표준, 연구동향
archival management, archival management standards, record metadata standards, ISO archival management standards, research trends

* 대구가톨릭대학교 기록대학원 석사과정(dytisam054@gmail.com) (제1저자)

** 대구가톨릭대학교 문헌정보학과(shchoi@cu.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23년 11월 20일 ■ 최초심사일자: 2023년 12월 5일 ■ 게재확정일자: 2023년 12월 9일

■ 정보관리학회지, 40(4), 351-373, 2023. <http://dx.doi.org/10.3743/KOSIM.2023.40.4.351>

※ Copyright © 2023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기록은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핵심요소가 자 문화유산으로, 효율적인 기록관리는 조직의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기록의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기록관리에 일관성을 부여하여 다양한 조직이 동일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록관리표준은 효율적인 기록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

기록관리학계에서도 현재까지 진행된 기록관리표준과 관련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개발된 기록관리표준들을 분석하고 이를 다양한 조직과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기록관리학계의 연구동향에 관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기록분류, 기록조직, 전자기록 등 세부 주제별로 다양한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각 영역에 속하는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기록관리표준 연구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은 미진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록관리표준에 관한 연구논문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ScienceON,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RISS, 한국연구재단의 KCI에서 논문들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논문에서는 해당 논문의 표제, 주제어, 초록의 키워드를 분석한 후 상위빈도 키워드를 추출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여 기록관리표준연구에서 연구되고 있는 주제를 분석하였다.

기존에 진행된 기록관리표준 관련 연구를 분석하고 다양한 조직과 환경에서 이루어진 연구

를 검토함으로써, 국내 기록관리표준 연구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내 연구동향의 변화와 발전을 조명하여 이를 통해 국내 기록관리표준 연구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향후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현재까지 발표된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논문과 기록관리표준 관련 연구 논문을 분석하였다.

첫째, 특정 학술지를 선정하여 해당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박희진(2014)은 기록관리학 학술지 중 *Archivaria*에 게재된 논문 중 2009~2014년에 실린 75편의 논문을 조사 및 분석하여 기록관리학 주요 주제영역의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윤여현 외(2016)는 *Information Management*에 2009~2016년까지 실린 987개 기사를 분석하여 국외 기록 정보관리 분야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기록학계도 기록정보 생산 및 관리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분야 간 협력에 기초한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손혜인과 남영준(2016)은 국내 기록관리학 학술지인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에 2000~2015년까지 게재된 논문 681편을 대상으로 논문의 연구자 배경, 공저자, 논문 주제를 빈도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하여 두 학술지의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김현정(2023)은 영국의 기록관리학 학술지인 *Archives and Records*에 실린 142편의 논문과 국내 학술지인 기록학연구에 2013년부터

최근 10년간 실린 318편의 논문을 조사 및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둘째, 기록관리학 분야 중 특정 연구 분야를 선정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들이다. 이소연(2011)은 국내 기록관리학 학술지 중 6종의 학술지를 선정하여 해당 학술지에 게재된 전자 기록을 연구한 논문 57편을 8가지 주제영역으로 분류하여 각 영역의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이소연(2013)은 국내의 디지털아카이브와 보존에 관한 키워드를 선정하여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논문 115건을 수집하였다. 각 논문의 내용을 분석하여 일반연구, 정책연구, 기술연구, 디지털 자원 유형의 4개 주제영역으로 분류하여 주요 동향을 분석하였다. 김진 외(2013)는 2001~2013년까지 국내 기록정보서비스 분야를 연구한 73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정량적 분석을 진행하고 각 세부 주제별로 내용분석을 하여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성과를 정리하였다. 최정민과 김유승(2013)은 정보공개제도를 연구한 논문 중 1982~2013년에 게재된 학술지 논문 97편의 논문을 분석하고 9개 주제로 분류하여 연도별 연구주제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재영과 정연경(2018)은 1991~2018년까지 국내 구술사 연구논문 439편을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이후 연구로 연구시기, 연구 대상, 상세 주제 분석 등으로 구술사 연구영역을 넓혀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은주와 노지현(2020)은 기록조직 연구의 범주에 속하는 150편의 국내 학술 논문을 수집하여 키워드 추출을 진행하고 빈도 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용어분석과 맥락과 의미 등의 실제 연구내용을 분석하는 내용 분석을 진행하여 기록조직 연구의 의의를 논의하였다. 나연희와 박희진(2022)은 기록관리학

의 연구 분야 중 기록보존을 대상으로 2000~2012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463편의 논문을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을 분석하여 각 연도 구간별로 기록보존연구의 중심 연구주제를 분석하였다.

셋째, 기록관리학 전체 연구 동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다. 김규환과 남영준(2009)은 3종의 학회지에서 374편의 논문을 빈도분석, 대응분석의 정량적 분석을 통해 기록관리학 연구를 13개 주제영역으로 설정하고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남태우와 이진영(2009)은 국내 기록관리학 학술지 4종에 1987~2007년까지 게재된 논문 399편을 대상으로 주제, 간행시기, 학회지, 연구자의 4개 영역별 분포를 통계분석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신준성(2010)은 2001~2010년에 간행된 560편의 학위논문의 주제영역, 연구방법, 연구대상기관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2008~2010년에 간행된 262편의 학위 논문을 인용분석하여 인용문헌의 빈도와 수명을 분석하였다. 최이랑(2015)은 5종의 학술지에서 479편의 논문을 수집하고 키워드, 소속기관을 중심으로 내용 및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여 기록관리학 연구의 주요 키워드와 기록관리학 학술연구 커뮤니티의 핵심 기관을 파악하였다. 정인수(2020)는 수집한 논문을 주관적인 요소가 반영될 수 있는 정성적 분석이 아닌 정량적 분석을 사용하여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넷째, 기록관리표준을 분석한 연구이다. 정기애(2010)는 TC46/SC11에서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기록경영시스템 표준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기록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박지영(2016;

2017)은 ICA EGAD의 기록기술표준인 RiC를 소개 및 분석하여 국내 기록물 기술표준과 기록 관리환경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전 보배와 설문원(2019)은 ISO 15489-1과 ISO/TR 21946를 분석하고 기록 평가 프로세스를 대학의 업무 중 '시험 및 성적관리' 업무에 적용해봄으로써 기록 평가 국제표준의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김효선과 김지현(2020)은 2019년 개정된 ISO 30301표준을 분석하여 국내 기록관리체계와 실무분야에 제시하는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본 논문에서는 연구를 다음의 사항에 따라 진행하였다. 첫째, 특정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아닌 기록관리표준과 관련된 국내 논문을 수집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논문을 수집한 출처는 ScienceON, RISS, KCI이다. 둘째, 키워드 빈도분석과 같은 통계적 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의 정량적 분석을 활용하여 기록관리표준에 관한 논문을 분석하였다.

3. 연구방법

3.1 데이터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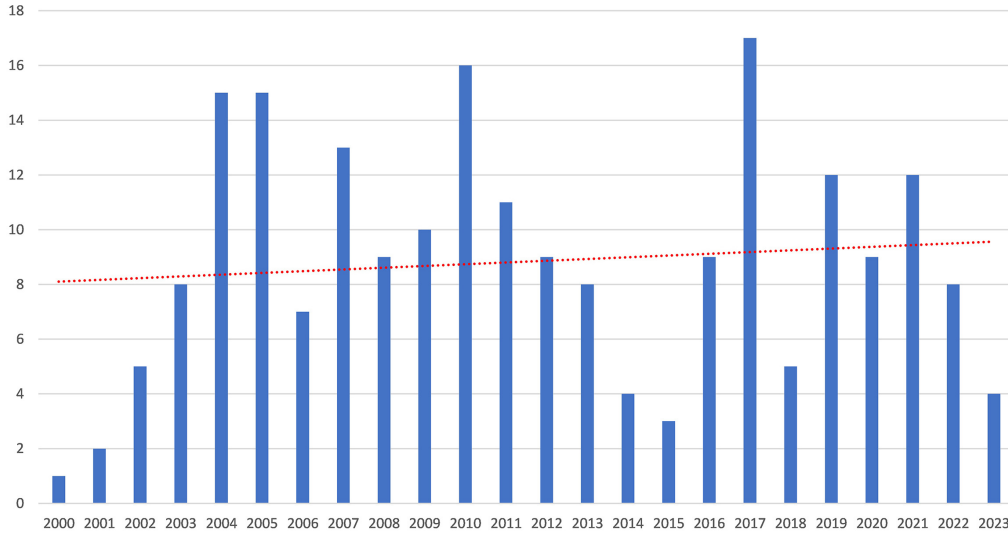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표준', '규칙', '메타데이터', '전자저제어', 'ISO' 등의 기록관리표준에 관한 키워드를 ScienceON, RISS, KCI에서 검색하여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된 논문 중 표제, 키워드, 초록에서 해당 키워드가 기재된 212편의 논문을 연구대상 논문으로 수집하였다. 연구가 발표된 연도별 추이는 <그림 1>과 같이 2010년

부터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04~2005년도와 2007년, 2010년, 2017년 등 특정 연도에 연구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4~2005년도의 경우 '보존', '아카이브' 등의 키워드가 표제에서 많이 발견되었는데, 2002년 OAI의 제정 이후 국내 기록학계에서도 점차 기록보존에 대한 연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2007년은 '현용', 'ISO15489'의 키워드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KS X ISO15489의 개정으로 관련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0년은 특정한 표준의 발표나 개정은 없었으나 '보존', '메타데이터' 등의 키워드가 발견되었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2017년은 RiC와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발견되어 2016년 RiC의 발표로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록관리표준을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 주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록관리 표준 연구가 수행된 초기 11년과 이후 현재까지 12년으로 전체 연구가 수행된 시기를 이분하여 연구주제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논문은 2000~2010년, 2011~2023년의 2개 구간으로 구분하였으며 논문의 표제, 주제어, 초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제는 212편의 논문이 모두 분석 대상이었고 주제어는 주제어가 없는 46편의 논문을 제외하고 166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초록은 국문 초록을 우선으로 하되 국문 초록이 없는 13편의 논문은 영문초록을 분석 대상으로 212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3.2 데이터 분석방법

수집한 212편의 논문의 표제, 주제어, 초록은



〈그림 1〉 연도별 논문발행 편수

〈표 1〉 키워드 전처리 작업

키워드 전처리 사항	예시
유사한 용어의 통일	- 아카이브, 아카이빙 → 아카이브 - 전거제어, 전거통제 → 전거제어
관련 용어의 통일	- ISO15489, ISO14721 → ISO관련 표준 - KS X ISO 15489, KS X ISO 23081 → KS관련 표준
축약 명칭의 통일	- Record in Context → RiC - Reference Model for an 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 → OAIS
국문, 영문 혼용시 국문 우선 표기	- metadata, Metadata → 메타데이터 - description → 기록기술 - Archival Information Package → 보존정보패키지
복합명사의 분리	- 생산·관리방법 → 생산방법, 관리방법 - 국내·외 → 국내, 국외 - 위·변조 → 위조, 변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개발한 형태소 분석기 바른을 사용하여 키워드를 추출하고 유사한 용어의 통일, 축약 명칭의 통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불용어(연구, 중심, 목적, 결과 등)의 제외 등의 키워드 전처리 과정을 통해 키워드를 정제하였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표 1〉과 같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 정제된 표제 키

워드는 413개, 주제어 키워드는 436개, 초록 키워드는 4,746개였으며, 발행 연도를 기준으로 2000~2010년, 2011~2023년, 기간구분을 하지 않은 전체 연도로 키워드 빈도를 분석하여 표제와 주제어 키워드는 빈도수 4 이상 키워드를 모두 추출하고, 초록 키워드는 상위빈도 키워드 50여 개를 추출하였다.

첫째, 표제 상위빈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제의 빈도 4 이상 키워드는 2000~2010년은 19개, 2011~2023년은 27개 키워드로 <표 2>, <표 3>과 같이 분석되었다. 최상위 순위의 키워드가 '기록',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등의 키워드인 것은 공통점이었으나, 2000~2010년에는 'O AIS' 키워드가 상위에 속하지만 2011~2023년에는 'RiC' 키워드와 '기록경영시스템표준' 키워드가 'O AIS'

키워드보다 상위빈도에 속함을 알 수 있었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에 따라 기록관리학계에서도 기록보존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2002년 디지털 자원의 장기보존 국제표준인 O AIS가 제안되면서 2000년대 초반에는 이에 대한 논문이 많이 게재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2011년 ISO30301 (기록경영시스템표준)과 2016년 RiC가 발표되

<표 2> 표제 상위빈도(2000~2010년)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1	기록	40	11	관리	8
2	메타데이터	23	12	보존	7
3	기록관리	19	13	설계	7
4	표준	15	14	기술	6
5	요소	14	15	기술요소	6
6	아카이브	13	16	전거제어	6
7	개발	10	17	공공기관	4
8	O AIS	9	18	구축	4
9	분석	9	19	기록관리시스템	4
10	ISO관련 표준	8			

<표 3> 표제 상위빈도(2011~2023년)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1	기록	42	15	모형	6
2	기록관리	21	16	표준	6
3	ISO관련 표준	17	17	기록경영시스템표준	5
4	메타데이터	14	18	기록관리시스템	5
5	개선	14	19	디지털	5
6	아카이브	11	20	활용	5
7	분석	10	21	O AIS	4
8	설계	9	22	공공기관	4
9	관리	8	23	기록관	4
10	기술요소	8	24	도입	4
11	RiC	6	25	보존	4
12	개발	6	26	요소	4
13	구축	6	27	평가	4
14	기술	6			

면서 2010년대에는 기록관리표준에 관한 연구도 새로이 발표된 표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1~2023년 상위순위에 등장한 '개선' 키워드는 초기 아카이브가 구축되고 이를 개선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주제어 상위빈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주제어의 빈도 4 이상 키워드는 2000~2010년은 21개 키워드, 2011~2023년은 23개 키워드로 <표

4>, <표 5>와 같이 분석되었다. 2000~2010년에는 '보존', '아카이브', 'OAIS'의 키워드가 최상위에 있는 것으로 볼 때 표제 키워드와 동일하게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기록물 보존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1~2023년의 'ISO관련 표준' 키워드는 2011년 발표된 ISO30301(기록경영시스템표준)과 2016년 ISO15489 개정판의 제출로 인한 ISO관련 표준에 관한 연구가 증가한 것으로

<표 4> 주제어 상위빈도(2000~2010년)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1	메타데이터	39	12	기술	6
2	기록	37	13	시스템	6
3	기록관리	27	14	디지털 자원	5
4	보존	20	15	KORMARC	4
5	아카이브	20	16	국제표준	4
6	OAIS	14	17	기록관리표준	4
7	전자제어	13	18	기술규칙	4
8	표준	9	19	데이터세트	4
9	기술요소	7	20	보존정보패키지	4
10	검색도구	6	21	장기보존	4
11	기록관리시스템	6			

<표 5> 주제어 상위빈도(2011~2023년)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1	기록	38	13	기록기술	5
2	ISO관련 표준	30	14	기술규칙	5
3	기록관리	26	15	기술요소	5
4	아카이브	25	16	상호운용성	5
5	메타데이터	21	17	RiC	4
6	기록관리시스템	13	18	기록관	4
7	기록경영시스템	10	19	기록관리법	4
8	OAIS	7	20	기술	4
9	기록경영	7	21	시소러스	4
10	기록관리표준	7	22	영구기록물	4
11	보존	7	23	온톨로지	4
12	ISAD(G)	5			

로 분석되었다. 'ISAD(G)', '기술규칙', '기술요소' 등의 기록기술에 관한 키워드는 2016년 차세대 기록기술표준인 RiC가 발표되면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연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초록 상위빈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빈도 4 이상 키워드 중에서 상위빈도 키워드만을 추출한 결과 2000~2010년은 52개 키워드, 2011~2023년은 50개 키워드로 <표 6>, <표 7>과 같이 분석되었다. '기록',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키워드가 최상위 빈도로 발견되는 것은 표제, 주제어 키워드와 동일하다. 2000~2010년에는 '현용기록', '기록관리법', '혁신' 등의 키워드가 발견되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록관리에 대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어 실무환경에서의 기록관리에 관한 연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1~2023년에

'전자메일' 키워드는 기존에 연구되던 주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의 분석은 이재운이 개발한 WNET 프로그램(이재운, 2006)을 사용하고 분석된 네트워크 데이터는 NodeXL 프로그램으로 시각화하였다.

4.1 표제 키워드 네트워크 기간별 비교 분석

2000~2010년 표제 네트워크 분석 결과의

<표 6> 초록 상위빈도(2000~2010년)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1	기록	460	19	기록관리시스템	52	36	기록관리법	27
2	기록관리	175	20	기관	49	37	수집	27
3	메타데이터	161	21	장기보존	49	38	대상	26
4	요소	145	22	방법	41	39	업무	26
5	표준	116	23	영역	39	40	자료	26
6	보존	92	24	특성	39	41	국가기록원	25
7	기술	90	25	전자문서	37	42	박물	25
8	ISO관련 표준	81	26	현용기록	37	43	개념	24
9	관리	72	27	기술규칙	36	44	문헌연구	24
10	기술요소	67	28	공공기관	35	45	평가지표	24
11	시스템	66	29	국제표준	35	46	진본성	23
12	전거제어	65	30	환경	32	47	물리적	21
13	OAIS	59	31	분석	31	48	생산	21
14	기능	59	32	구술자료	30	49	요건	21
15	정보	57	33	디지털	30	50	접근	21
16	아카이브	57	34	개발	28	51	출처정보	21
17	ISAD(G)	56	35	EAD	27	52	혁신	21
18	검색도구	53						

〈표 7〉 초록 상위빈도(2011~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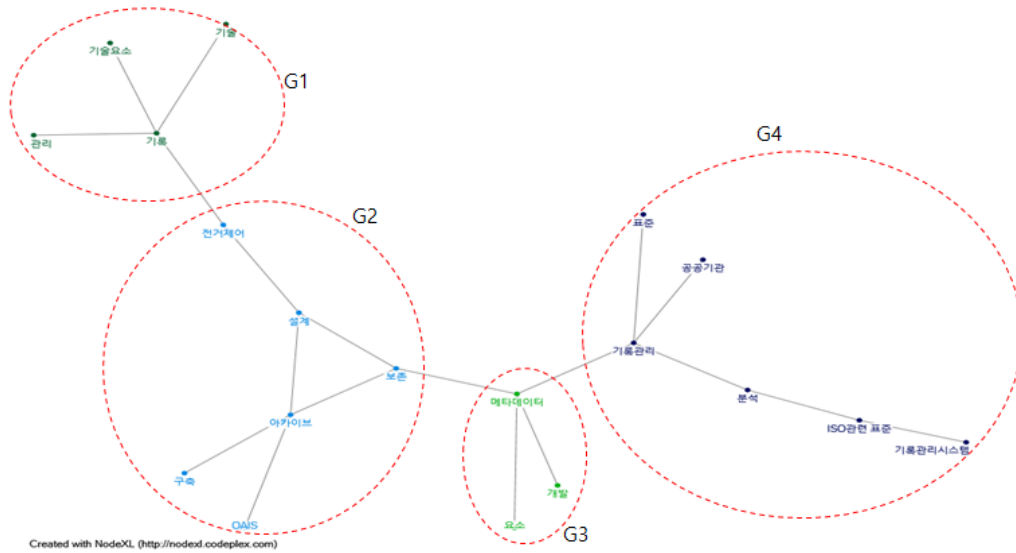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1	기록	637	18	정보	49	35	OAIS	32
2	기록관리	293	19	업무	48	36	공공기관	32
3	ISO관련 표준	164	20	기술규칙	43	37	유형	32
4	메타데이터	110	21	시스템	42	38	환경	32
5	기관	108	22	인증	42	39	가치	31
6	표준	101	23	국가기록원	40	40	생산	31
7	아카이브	91	24	장기보존	38	41	서비스	30
8	요소	88	25	인증제도	36	42	전자메일	30
9	기술요소	86	26	기능	34	43	과정	29
10	기록관리시스템	83	27	박물관	34	44	기록경영시스템	29
11	특성	73	28	분석	34	45	효율	29
12	관리	72	29	평가	34	46	인식	28
13	영역	65	30	활용	34	47	기술표준	27
14	기술	62	31	기록경영	33	48	메타데이터요소	27
15	보존	60	32	기록관	33	49	전문가	27
16	ISAD(G)	54	33	조직	33	50	체계	27
17	RiC	51	34	프로세스	33			

시각화는 〈그림 2〉와 같다. ‘기록기술(G1)’, ‘아카이브 설계(G2)’, ‘메타데이터 개발(G3)’, ‘기록관리표준 분석(G4)’의 4개 그룹으로 분석되었으며, G2와 G4의 2개 그룹이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였다. ‘아카이브 설계(G2)’는 ‘아카이브’, ‘설계’, ‘보존’, ‘구축’, ‘OAIS’ 키워드가 포함된 그룹이다. ‘기록관리표준 분석(G4)’ 그룹에는 ‘기록관리’, ‘분석’, ‘ISO 관련 표준’ 등이 포함된다. 2순위 그룹은 ‘기록기술(G1)’로 ‘기록’, ‘기술요소’, ‘기술’이 포함된 그룹이다. 마지막 그룹은 ‘메타데이터 개발(G3)’이며 ‘메타데이터’, ‘요소’, ‘개발’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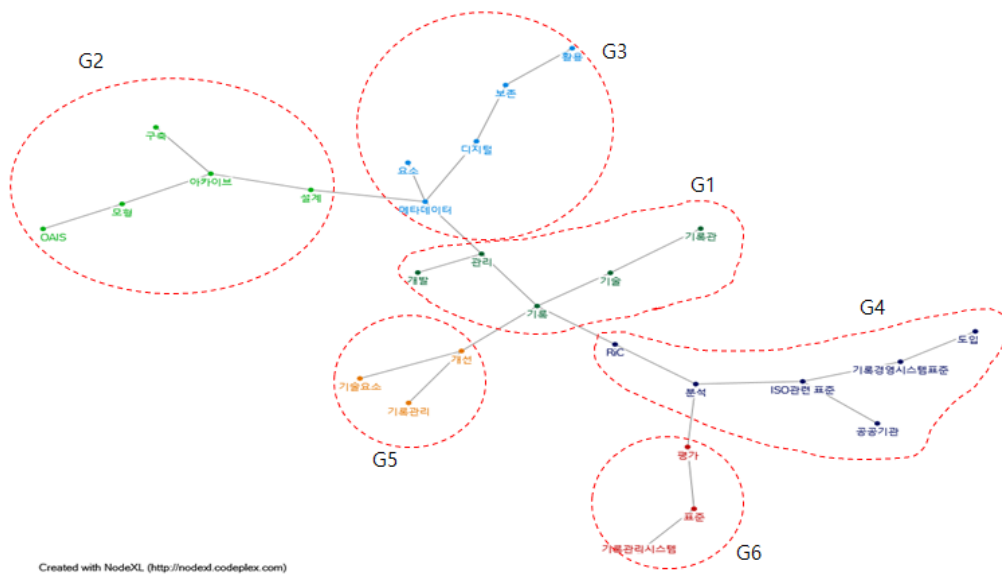
2011~2023년 표제 네트워크 분석 결과의 시각화는 〈그림 3〉으로, ‘기록기술(G1)’, ‘아카이브 설계(G2)’, ‘디지털 메타데이터(G3)’, ‘기록관리표준 분석(G4)’, ‘기록관리 개선(G5)’, ‘기록관리시스템 평가(G6)’의 6개 그룹이다. 가장

큰 그룹은 ‘기록관리표준 분석(G4)’ 그룹으로 ‘분석’, ‘RiC’, ‘ISO 관련 표준’, ‘기록경영시스템 표준’ 등이 포함된다. 다음은 ‘기록기술(G1)’, ‘아카이브 설계(G2)’, ‘디지털 메타데이터(G3)’의 3개 그룹이다. ‘기록기술(G1)’ 그룹은 ‘기록’, ‘관리’, ‘기술’ 등의 키워드로 구성되었다. ‘아카이브 설계(G2)’ 그룹에는 ‘아카이브’, ‘설계’, ‘구축’, ‘모형’과 ‘모형’관 연관된 주제로 ‘OAIS’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메타데이터(G3)’ 그룹은 ‘메타데이터’, ‘디지털’, ‘보존’, ‘활용’ 등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가장 작은 영역을 차지한 그룹은 ‘기록관리 개선(G5)’, ‘기록관리시스템 평가(G6)’으로 각각, ‘개선’, ‘기술요소’, ‘기록관리’와 ‘평가’,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을 주제로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2000~2010년과 2011~2023년의 표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도를 비교·분석



〈그림 2〉 표제 네트워크 분석도(2000~2010년)



〈그림 3〉 표제 네트워크 분석도(2011~2023년)

하였다. 먼저 동일하게 출현한 그룹에 관한 분석이다. 2000~2010년, 2011~2023년 모두 ‘기록기술’, ‘아카이브 설계’, ‘기록관리표준 분석’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각 그룹을 구성하는 키워드의 동향을 분석하니 연구의 방향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기록기술' 그룹은 2000~2010년에는 '기술요소' 키워드가 포함된 것을 보았을 때, 기록기술의 개념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2011~2023년에는 '기술요소' 키워드가 없어지고 '개발', '기록관' 키워드가 포함된 것으로 각 기록관에 맞는 기록기술 방식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카이브 설계' 그룹도 2000~2010년에는 아카이브 설계를 위한 OAI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2011~2023년에는 '모형' 키워드의 추가로 아카이브 모형 연구가 주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록관리표준 분석' 그룹은 2000~2010년에는 공공기관에 기록관리표준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RiC', '기록경영시스템표준' 등의 키워드가 추가된 것으로 보아 2011~2023년에는 해당 표준들에 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0~2010년과 2011~2023년의 차이점으로는 메타데이터에 관한 그룹은 2000~2010년에는 '메타데이터 개발'로 메타데이터 요소 등의 메타데이터 개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2011~2023년에는 '디지털 메타데이터'로 디지털자료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디지털 메타데이터 요소의 개발이 연구되었다. 또한, 2011~2023년에는 '기록관리 개선' 그룹으로 기록관리 기술요소의 개선을 위한 연구, '기록관리시스템 평가' 그룹으로 표준을 통한 기록관리시스템 평가 연구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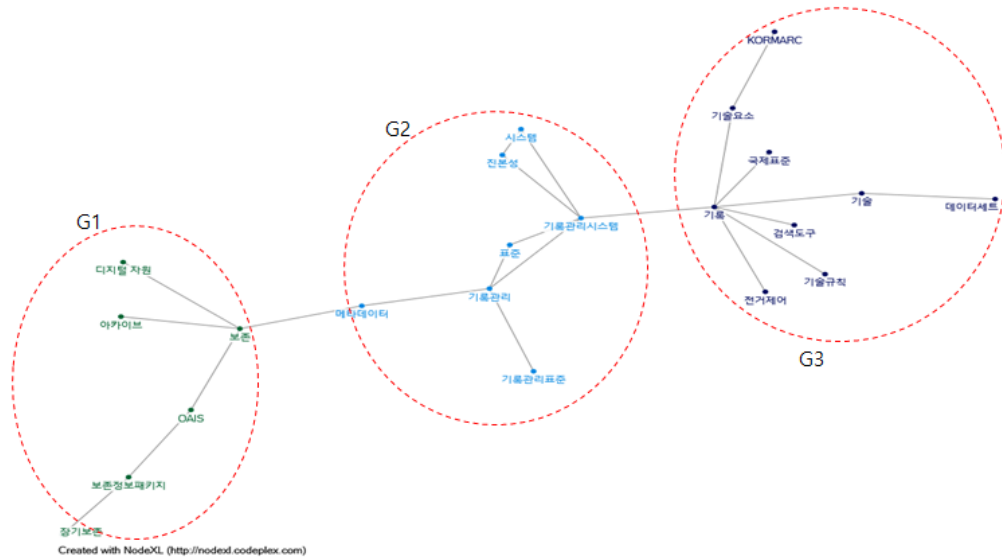
4.2 주제 키워드 네트워크 기간별 비교 분석

2000~2010년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도는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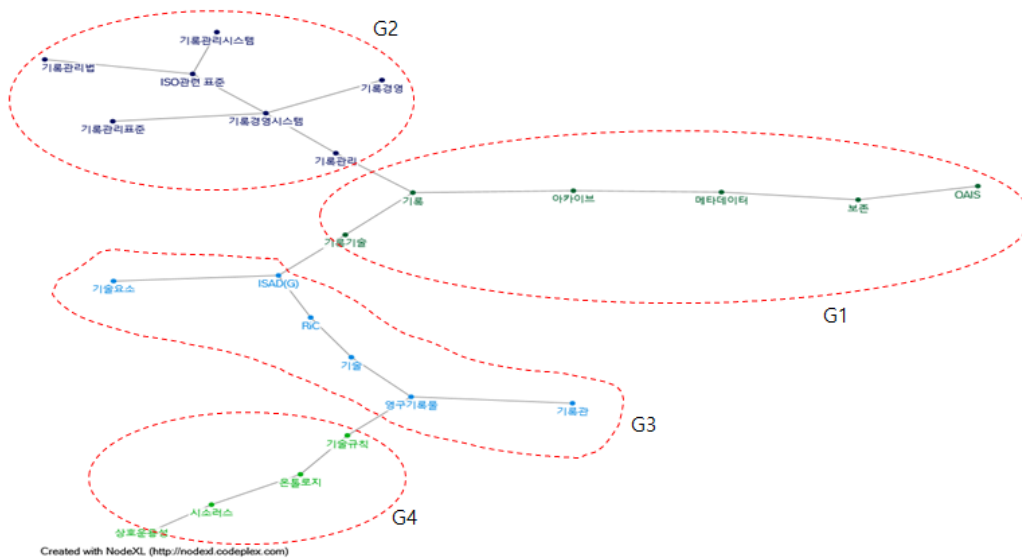
림 4>와 같다. '기록보존(G1)', '기록관리표준(G2)', '기록기술(G3)'의 3개 그룹으로 구성되며, 가장 큰 그룹은 '기록기술(G3)'로 '기록', '기술요소', '기술', '기술규칙' 등이 포함된다. 다음은 '기록관리표준(G2)' 그룹에서는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기록관리표준'으로 구성되며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관된 주제로 '진본성', '시스템'이 포함된다. '기록보존(G1)' 그룹은 '보존', '디지털 자원', '아카이브', 'OAI', '보존정보패키지', '장기보존'을 주제로 포함하고 있었다.

2011~2023년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그림 5>이다. '기록보존(G1)', '기록관리표준(G2)', '보존기록기술(G3)', '온톨로지 연계(G4)'의 4개 그룹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큰 그룹은 '기록관리표준(G2)'로 '기록관리', '기록경영시스템', 'ISO 관련 표준'과 '기록경영시스템'의 연관되는 주제로 '기록관리표준'과 '기록경영'이 있으며, 'ISO 관련 표준'은 '기록관리법', '기록관리시스템'이 있다. 다음은 '기록보존(G1)', '보존기록기술(G3)'의 2개 그룹이다. 기록보존(G1) 그룹은 '기록', '기록기술', '아카이브', '메타데이터', '보존', 'OAI'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었다. '보존기록기술(G3)' 그룹에는 'ISAD(G)', '기술요소', 'RiC'와 '영구기록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온톨로지 연계(G4)' 그룹은 '기술규칙', '온톨로지', '시소러스', '상호운영성'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2000~2010년과 2011~2023년의 주제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동일하게 출현한 그룹에 관한 분석이다. 2000~2010년, 2011~2023년 모두 '기록보존'과 '기록관리표준'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림 4〉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도(2000~2010년)



〈그림 5〉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도(2011~2023년)

각 그룹을 구성하는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각 기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0~2010년에는 ‘디지털 자원’, ‘보존정보패키

지’, ‘장기보존’이 포함되어 디지털 기록의 보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며, 2011~2023년에는 앞의 3개 키워드가 없어지고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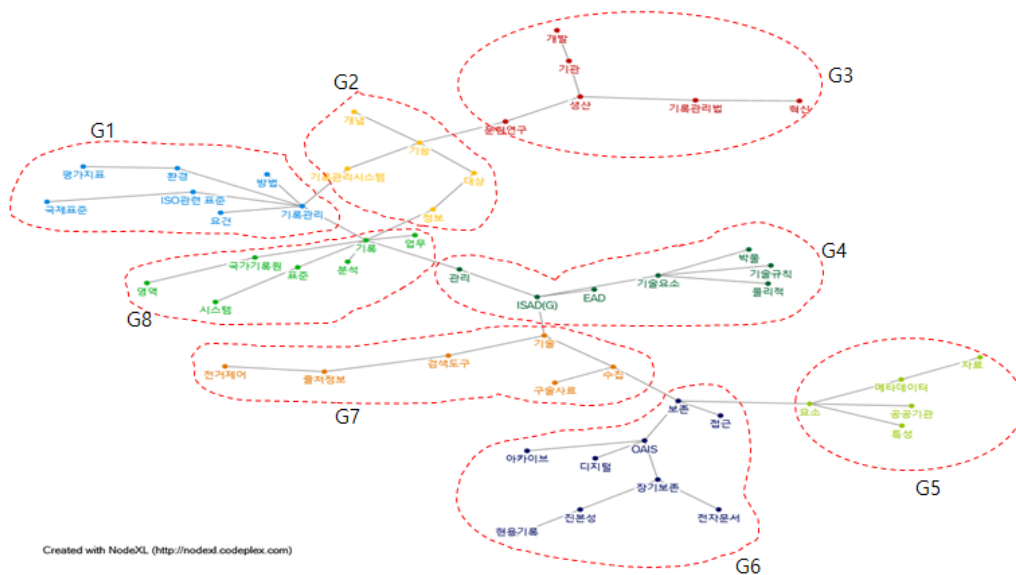
록, '기록기술', '메타데이터' 키워드가 포함되어 보존기록의 메타데이터 기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록관리표준' 그룹은 2000~2010년에는 '기록관리시스템', '메타데이터' 키워드로 기록관리시스템 적용을 위한 기록관리표준 연구가 진행됨을 알 수 있었지만, 2011~2023년에는 '기록경영시스템', 'ISO관련 표준' 키워드로 ISO표준 자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0~2010년, 2011~2023년 연구를 비교 분석한 결과 기간별로 다르게 나타난 그룹은 2000~2010년의 '기록기술'과 2011~2023년의 '보존기록기술', '온톨로지 연계'이다. 2000~2010년에는 '기록기술'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검색도구', '전자제어', '데이터세트' 등의 주제로 기록물 검색을 위한 기록기술규칙이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고, 2011~2023년에는 '보존기록기술'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ISAD(G)', 'RiC', '영구기록

물'과 같은 주제로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RiC가 발표되면서 영구기록물 기술을 위한 표준으로 기존의 ISAD(G)에서 RiC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온톨로지 연계'는 온톨로지와 시소러스의 상호운영을 위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4.3 초록 키워드 네트워크 기간별 비교 분석

2000~2010년 초록 네트워크 분석도는 <그림 6>과 같다. '기록관리표준(G1)', '기록관리시스템(G2)', '기록관리법(G3)', '기록기술표준(G4)', '메타데이터(G5)', '기록보존(G6)', '기록기술(G7)', '기록관리업무(G8)'의 8개 그룹으로 구성되며, 가장 큰 그룹은 '기록보존(G6)'로 '보존', 'OAIS', '아카이브', '디지털', '장기보존' 등으로 구성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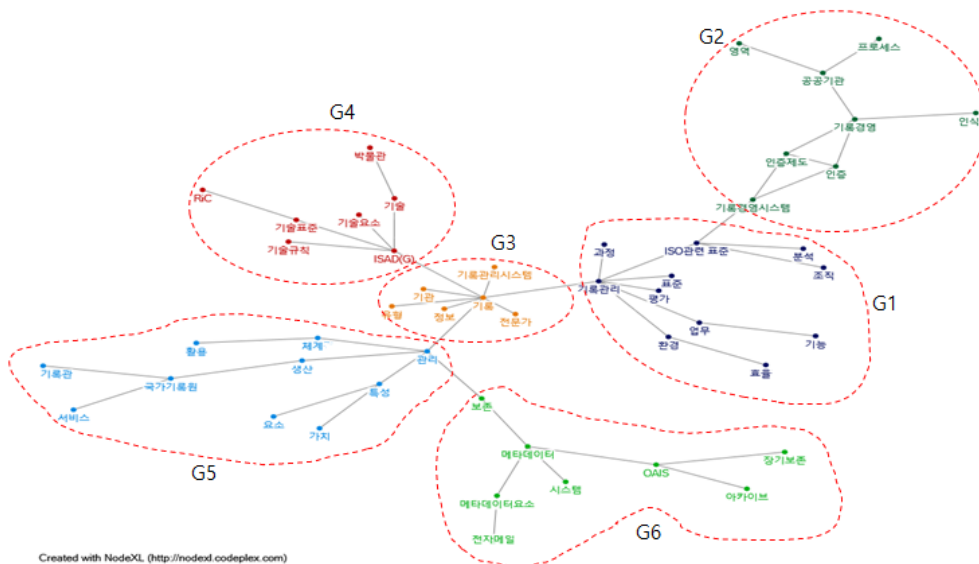


<그림 6> 초록 네트워크 분석도(2000~2010년)

었다. 다음은 '기록관리표준(G1)', '기록기술표준(G4)', '기록관리업무(G8)'의 3개 그룹이 같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기록관리표준(G1)' 그룹은 '기록관리', '방법', '환경', 'ISO 관련 표준', '요건'과 같은 표준에 관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기록기술표준(G4)'는 'ISAD(G)', '관리', '기술요소', 'EAD'로 구성된 그룹이며 '기술요소'의 관련 주제로 '박물', '기술규칙', '물리적'이 포함된다. '기록관리업무(G8)' 그룹에서는 '기록', '업무', '분석', '표준', '국가기록원', 'ISO 관련 표준', '국제 표준' 등이 주제로 나타났고, '기록관리법(G3)', '기록기술(G7)' 그룹과 같은 비중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록관리법(G3)'은 '기록관리법', '혁신'과 '생산'의 연관 주제로 '문헌연구', '기관', '개발'이 포함된 그룹이며 '기록기술(G7)' 그룹에서는 '기술', '검색도구', '수집', '출처정보', '전자제어', '구술사료'가 주요 주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록관리시스템(G2)'는 '기록관리

시스템', '기능', '개념', '대상', '정보'로 구성된 주제 그룹이다.

2011~2023년 초록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그림 7>로 '기록관리표준(G1)', '기록경영(G2)', '기록관리환경(G3)', '기록기술표준(G4)', '기록관리체계(G5)', '기록보존(G6)'의 6개 그룹이다. 가장 큰 그룹은 '기록관리표준(G1)'이며 '기록관리', 'ISO 관련 표준', '표준', '평가', '업무', '환경'이 주요 주제로 나타났다. 다음은 '기록관리체계(G5)' 그룹으로 '관리'를 기준으로 '체계', '생산', '특성'이 연결되어 있는 주제 그룹이다. '기록경영(G2)', '기록보존(G6)'은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주제 그룹으로 나타났는데, '기록경영(G2)' 그룹은 '기록경영시스템'에서 '인증제도', '인증', '기록경영', '인식', '공공기관', '영역', '프로세스'와 같은 주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기록보존(G6)' 그룹에서는 '보존', '메타데이터', 'OAIS'가 핵심 주제로 나타났으며 '메타데이



<그림 7> 초록 네트워크 분석도(2011~2023년)

터'는 '메타데이터요소', '전자메일', '시스템'으로 'OAIS'는 '장기보존'과 '아카이브'가 연결되었다. '기록기술표준(G4)' 그룹에서는 'ISAD(G)'와 '기술', '박물관', '기술요소', '기술표준', 'RiC', '기술규칙'으로 연결된 주제로 나타났다. 마지막 '기록관리환경(G3)' 그룹은 '기록'을 중심으로 '기록관리시스템', '전문가', '정보', '유형', '기관' 등의 키워드가 주제로 나타났다.

초록 네트워크는 표제, 주제어와 비교하였을 때 다양한 주제의 그룹이 등장하였다. 2000~2010년과 2011~2023년 초록 네트워크 분석도를 살펴보았을 때, '기록관리표준', '기록기술표준', '기록보존' 그룹이 동일한 주제로 나타났다. 반면 기록관리표준에 관련하여서는 2000~2010년은 기록관리표준을 적용하기 위한 환경과 방법의 연구들이 주를 이룬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1~2023년에는 지금까지 발표된 기록관리 ISO표준들의 분석과 평가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기술표준과 관련해서는 2000~2010년에는 기록기술표준의 물리적, 전자적 적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2011~2023년에는 ISAD(G)를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록보존 연구는 2000~2010년에는 OAIS를 통한 디지털 기록의 보존에 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고 2011~2023년에는 보존 기록의 메타데이터 연구가 주요 연구분야로 나타났다.

2000~2010년에만 등장한 주제 그룹은 '기록관리시스템', '기록관리법', '메타데이터', '기록기술', '기록관리업무' 그룹으로 '기록관리시스템'은 기록관리시스템의 개념과 기능에 관한 연구, '기록관리법'은 기록관리법을 기반으로 기관의 기록생산 및 개발의 혁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

고, '메타데이터'는 공공기관 기록물의 특성에 따른 메타데이터 요소에 관한 연구, '기록기술'은 기록수집을 위한 검색에서 기록기술의 전자 제어 연구, '기록관리업무'는 기록업무 분석, 기록시스템 표준 제정 등의 국가기록원에서 진행하는 기록업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1~2023년에 새롭게 '기록경영', '기록관리환경', '기록관리체제' 그룹이 주제로 등장했다. '기록경영'은 공공기관의 기록경영 인식과 기록경영시스템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기록관리환경'은 기록관리시스템, 기록유형, 기록관리 전문가 등의 기록관리를 위한 환경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관리체제'는 기록생산에서 기록활용까지 체계적인 기록서비스를 위한 기록관리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4.4 표제-주제어-초록 키워드 네트워크 종합분석

2000~2023년 표제, 주제어, 초록 키워드의 네트워크 분석 한 결과, 표제 네트워크는 '기록기술(G1)', '국내표준(G2)', '기록관리시스템(G3)', '유형별 기록경영(G4)', '디지털 보존(G5)', '메타데이터(G6)'의 6개 그룹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큰 그룹은 '유형별 기록경영(G4)'으로 '기록경영시스템표준'을 중심으로 'ISO관련표준', '분석', '평가', '절차', '도입', '공공기관', '기록경영시스템', '대학기록관', '기술요소', '박물관' 키워드로 구성되었다. 다음은 '메타데이터(G6)' 그룹으로 '메타데이터'를 기준으로 '개발', '요소', 'ISAD(G)', 'RiC', '설계', '구현', '보존'으로 구성되었다. '디지털 보존(G5)' 그룹에서는 '디지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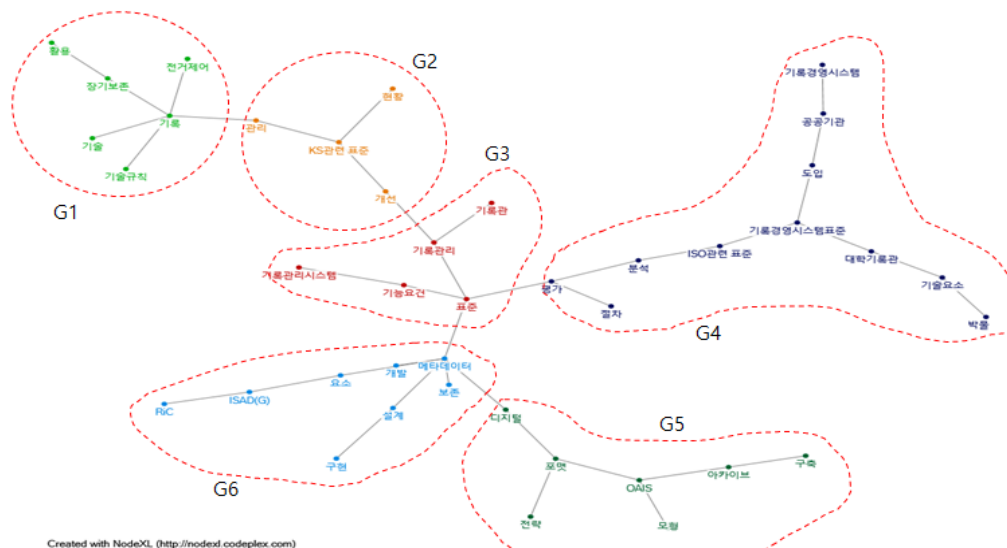
털'에서 '포맷', '전략', 'OAIS', '모형', '아카이브', '구축'이 주요 주제로 연결되었다.

'기록기술(G1)' 그룹은 '기록'을 중심으로 '전거제어', '장기보존', '활용', '기술', '기술규칙'으로 주제가 연결되며, '기록관리시스템(G3)' 그룹은 '기록관리', '기록관', '표준', '기능요건',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국내표준(G2)' 그룹은 'KS관련 표준'을 중심으로 '현황', '관리', '개선'을 주제로 포함하고 있었다. 이 중 '기록관리시스템(G3)' 그룹의 키워드인 '표준'은 '유형별 기록경영(G4)'의 '평가', '메타데이터(G6)'의 '메타데이터' 키워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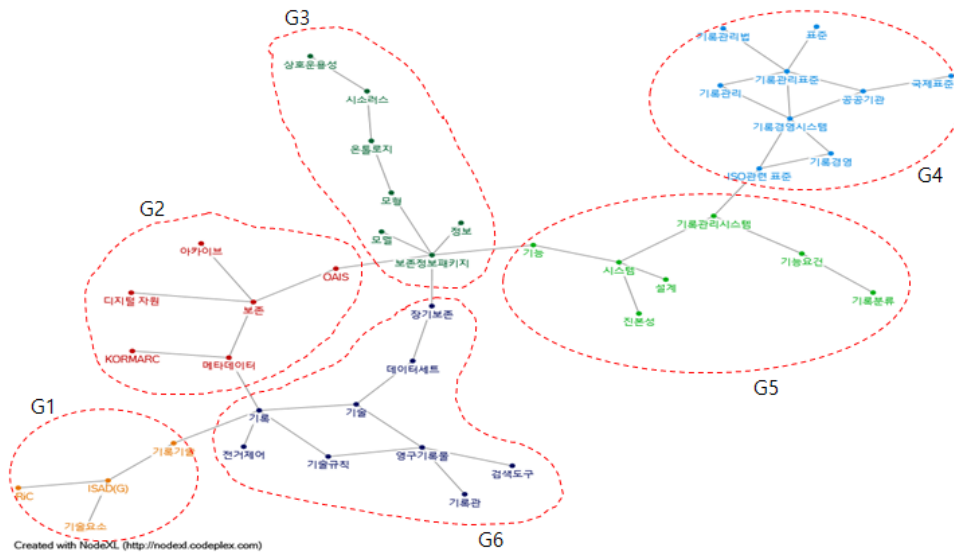
삼각매개중심성을 기반으로 한 상대적 삼각매개중심성으로 산출된 중심성 지수(이재운, 2013)를 가지고 표제네트워크를 살펴보면 '기록'이 1위로서(0.52949) 가장 높은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록표준연구라

는 주제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단어이므로 높은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결과로 해석된다. '기록'을 제외하고 중심성이 높은 표제어를 살펴보면 '메타데이터(0.23718)'와 '기록관리(0.232050)'가 높은 순으로 나타나 이 두 단어가 각기 다른 주제와 주제를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네트워크는 '기록기술(G1)', '기록보존(G2)', '기록구조화(G3)', '기록표준(G4)', '기록관리시스템(G5)', '보존기록기술(G6)'의 6개 그룹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한 것은 '기록표준(G4)', '보존기록기술(G6)' 그룹으로 '기록표준(G4)'는 'ISO관련 표준', '기록경영', '기록경영시스템', '기록관리', '기록관리표준', '기록관리법', '표준', '공공기관', '국제표준'으로 구성되었으며, '보존기록기술(G6)'은 '기록', '전거제어', '기술', '데이터세트', '장기보존', '기술규칙', '영구기록물', '기록관', '검색도구'로



〈그림 8〉 표제 네트워크 분석도(2000~2023년)



〈그림 9〉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도(2000~2023년)

구성되었다.

이외에도 ‘기록구조화(G3)’와 ‘기록관리시스템(G5)’ 집단이 주요 주제 그룹으로 나타났다. ‘기록구조화(G3)’ 그룹에서는 ‘은톨로지’, ‘시소러스’와 같은 주제가 주요 주제로 나타났고 ‘기록관리시스템(G5)’는 ‘기능’,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등과 같은 주제가 핵심으로 나타난 그룹이다. ‘기록보존(G2)’ 그룹에서는 ‘OAIS’, ‘보존’, ‘아카이브’, ‘디지털 자원’ 등의 주제가 나타났으며 ‘기록기술(G1)’은 ‘기록기술’, ‘ISAD(G)’, ‘RiC’가 포함된 그룹이다. 주제어의 중심키워드는 ‘기록구조화(G3)’의 ‘보존정보패키지’로 ‘기록보존(G2)’, ‘기록구조화(G3)’, ‘기록관리시스템(G5)’, ‘보존기록기술(G6)’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다.

상대적 중심성 지수에 기반하여 주제어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상위 3개 단어는 표제어와 동일하게 나타나 ‘기록’, ‘메타데이터’, ‘기록관

리’가 중심성이 높았다. 이외 중심성이 높은 단어로 주제어 네트워크에서 차별화되어 나타난 단어는 ‘아카이브(0.11585)’와 ‘기록관리시스템(0.10732)’으로 이 두 단어가 다른 주제와 주제를 연결해주는 중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록 네트워크는 ‘기록기술(G1)’, ‘보존 메타데이터(G2)’, ‘디지털 보존(G3)’, ‘기록업무(G4)’, ‘ISO표준(G5)’, ‘기록관리기능(G6)’, ‘기록관리(G7)’, ‘기록환경(G8)’의 8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큰 그룹은 ‘기록환경(G8)’이었다. 이 그룹에서는 ‘기록’을 중심으로 ‘정보’, ‘대상’, ‘개념’, ‘국가기록원’, ‘개발’, ‘전거제어’, ‘유형’, ‘분석’, ‘시스템’, ‘관리’, ‘생산’, ‘기관’ 등 기록관리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요소들이 주제로 나타났다. ‘기록관리(G7)’ 그룹에는 ‘기록관리’를 중심으로 ‘기록관리법’, ‘공공기관’, ‘영역’, ‘기록관리시스템’, ‘국제표준’ 등이 주요 주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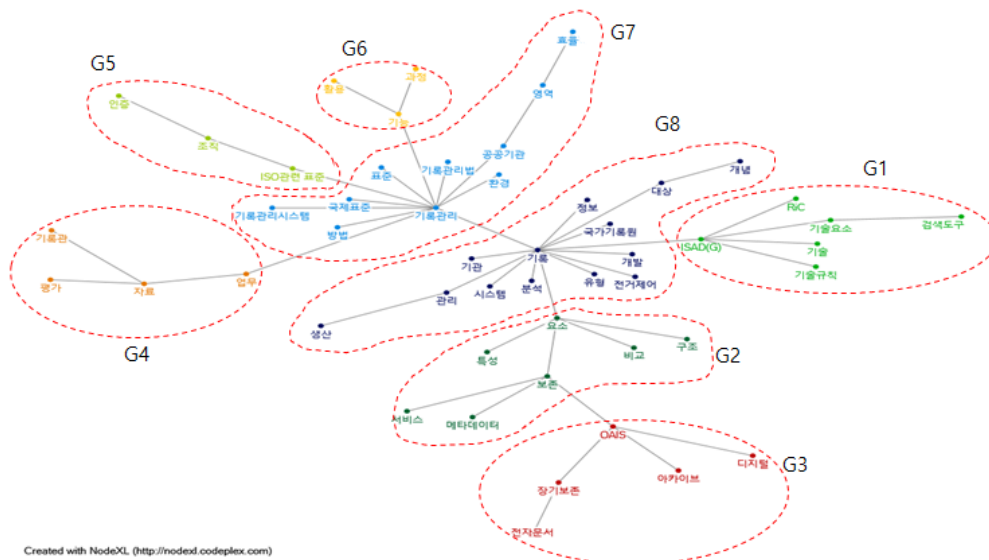
나타났으며 '보존 메타데이터(G2)' 그룹은 '보존', '서비스', '메타데이터' 등과 같은 주제로 구성된다. '기록기술(G1)' 그룹은 'ISAD(G)', 'RiC', '기술요소', '검색도구', '기술', '기술규칙'이 핵심 주제로 나타났으며, '디지털 보존(G3)'은 'OAIS', '장기보존', '전자문서', '아카이브', '디지털'이 포함된 그룹이다. '기록업무(G4)' 그룹에서는 '업무', '자료', '기록관', '평가'로 주제가 연결되어 있었으며 가장 작은 주제로 구성된 'ISO 표준(G5)'와 '기록관리기능(G6)' 그룹은 'ISO 관련 표준', '조직', '인증'과 '기능', '활용'이 각각 주제로 포함되어 있었다. 전체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핵심연결 주제로는 '기록관리(G7)' 그룹의 '기록관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기록관리'는 다른 주제 그룹인 '기록업무(G4)', 'ISO 표준(G5)', '기록관리기능(G6)', '기록환경(G8)' 그룹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이다.

초록 네트워크에서 상대적 중심성 지수를 살

펴보면 표제어 네트워크나 주제어 네트워크와 차별화되어 나타난 현상은 '메타데이터(0.4098)'의 중심성 지수 순위가 15위로 크게 떨어진 것이다. 반면 '기록(0.86122)'과 '기록관리(0.65224)'는 표제어 네트워크나 주제어 네트워크에서와 동일하게 높은 중심성 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초록에서는 일반적인 단어의 출현빈도가 높아지면서 '메타데이터'와 같이 주제성이 높은 단어들의 중심성이 낮아지게 되어 '보존(0.574690)', '환경(0.47347)' 등과 같은 일반적인 단어들이 여러 주제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기록관리 업무수행에 큰 도움을 주는 기록관리표준 분야에서는 연구동향을 분



<그림 10> 초록 네트워크 분석도(2000~2023년)

석한 사례가 미비한 것을 파악하고 이에 기록관리표준과 관련한 212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통계적으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주요 주제 분야를 시각화하여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관리표준에 관한 연구는 자료를 수집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정 연도의 앞뒤로 논문발행 수량이 늘어났는데, 이는 새로운 국제표준이 발표된 경우였다.

둘째, 상위빈도 키워드의 분석 결과이다. 표제-주제어-초록 모두 공통적으로 2000~2010년의 'OAIS', '보존' 등의 키워드가 높은 순위로 발견되었는데,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록보존에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에 2002년 디지털 자원의 장기보존에 관한 표준인 OAIS가 제정되어 국내에서도 보존에 관련된 연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2011~2023년에는 'RiC'와 '기록경영시스템표준' 등의 키워드가 발견되었는데, 2011년 제정된 기록경영시스템표준과 2016년 RiC 발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기록관리표준 연구의 변화가 2000~2010년과 2011~2023년 흐름에 따라 나타났다. 키워드 상위빈도가 2000~2010년에는 '수집', '대상', '기록관리법' 등의 기록업무 자체와 연관된 키워드가 등장하였지만 2011~2023년에는 '평

가', '인증', '조직', '효율적', '활용' 등의 기록업무 활용 단계에 연관된 키워드가 상위빈도에 등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표제-주제어-초록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2000~2010년은 아카이브 설계를 위한 OAIS 연구, 공공기관에 기록관리표준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 메타데이터 요소 등의 메타데이터 개발에 관한 연구, OAIS를 통한 디지털기록의 보존연구, 기록관리시스템 적용을 위한 기록관리표준 연구 등의 OAIS 및 기록보존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으며, 2011~2023년은 기록관리시스템 평가 연구, 영구기록물 기술을 위한 표준으로 기존의 ISAD(G)에서 RiC으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기록관리 ISO표준의 분석과 평가에 관한 연구, 기록경영시스템표준의 발표로 공공기관의 기록경영 인식과 기록경영시스템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등 RiC와 기록경영시스템표준에 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록관리 업무를 진행하면서 기록관리표준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본 연구는 기록관리표준 연구에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기록관리표준 연구의 지금까지의 연구 흐름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차후에 새로운 기록관리표준이 발표되었을 때 기존의 기록관리표준에 관한 연구를 분석하는 참고자료의 역할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진, 김수정, 윤은하, 한희정 (2013). 국내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199-229.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3.199>
- 김규환, 남영준 (2009).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학회지 논문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217-239. <https://doi.org/10.4275/KSLIS.2009.43.4.217>
- 김현정 (2023). Archives and Records 학술지 수록 논문을 통한 영국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3(3), 63-87. <https://doi.org/10.14404/JKSARM.2023.23.3.063>
- 김효선, 김지현 (2020). ISO 30301:2019 표준 개정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65), 397-457. <https://doi.org/10.20923/KJAS.2020.65.397>
- 나연희, 박희진 (2022). 국내 기록보존 연구동향 분석: 2000~2021년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4), 175-196. <https://doi.org/10.14404/JKSARM.2022.22.4.175>
- 남태우, 이진영 (2009).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451-472. <https://doi.org/10.16981/KLISS.40.2.200906.451>
- 박지영 (2016). 차세대 기록물 기술표준에 관한 연구: ICA EGAD의 Record In Context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1), 223-245. <https://doi.org/10.14404/JKSARM.2016.16.1.223>
- 박지영 (2017). RiC에 대한 기록공동체의 리뷰를 통해 본 기록물 기술표준 개선을 위한 제안. 기록학연구, (54), 81-109. <https://doi.org/10.20923/KJAS.2017.54.081>
- 박희진 (2014). Archivaria 리뷰를 통한 국외 기록관리학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99-125. <https://doi.org/10.14404/JKSARM.2014.14.4.099>
- 손혜인, 남영준 (2016). 기록관리학 분야 국내 학술지의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3(1), 85-110. <https://dx.doi.org/10.3743/KOSIM.2016.33.1.085>
- 신준성 (2010). 국내 기록관리학분야 석·박사학위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2001~2010.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윤여현, 이보람, 최동운, 최윤진, 임진희 (2016). 'Information Management'지에 나타난 기록정보관리 분야의 이슈와 동향. 정보관리학회지, 33(4), 245-267. <https://doi.org/10.3743/KOSIM.2016.33.4.245>
- 이소연 (2011). 국내 전자기록 연구의 동향 분석: 회고와 전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7-31. <https://doi.org/10.14404/JKSARM.2011.11.2.007>
- 이소연 (2013). 국내 디지털 보존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2), 247-283.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2.247>

- 이은주, 노지현 (2020). 국내 기록조직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4), 129-146.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4.129>
- 이재영, 정연경 (2018). 국내 구술사 연구 동향 분석: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3), 25-47.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3.025>
- 이재윤 (2006). 지적구조 분석을 위한 새로운 클러스터링 기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3(4), 215-231. <https://dx.doi.org/10.3743/KOSIM.2006.23.4.215>
- 이재윤 (2013). tnet과 WNET의 가중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 비교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0(4), 241-264. <https://doi.org/10.3743/KOSIM.2013.30.4.241>
- 전보배, 설문원 (2019). 기록 평가에 관한 국제표준의 적용방안 분석: ISO 15489-1과 ISO/TR 21946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4), 115-137.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4.115>
- 정기에 (2010). 기록경영시스템(MSR) 표준 제정에 대비한 기록관리의 발전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2), 171-192. <https://doi.org/10.14404/JKSARM.2010.10.2.171>
- 정인수 (2020). LDA 알고리즘을 활용한 국내 기록관리학의 연구동향 분석. 석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인문산업대학원 기록물관리학과.
- 최이랑 (2015).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최근 10년간(2004-2013)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3), 147-177. <https://doi.org/10.20923/KJAS.2015.43.147>
- 최정민, 김유승 (2013). 국내 정보공개 연구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173-197.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3.173>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Choi, Jeoung Min & Kim, You-seung (2013).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information freedom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3), 173-197.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3.173>
- Choi, Yilang (2015).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archival studies in Korea: focused on research papers between 2004 and 2013.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3), 147-177. <https://doi.org/10.20923/KJAS.2015.43.147>
- Jeong, In-soo (2020).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 of Record Management in Korea using LDA Algorithm. Master's thesis, Joongbu University.
- Jeong, Ki-Ae (2010).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the MSR standards for the development of records management practice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 Management, 10(2), 171-192. <https://doi.org/10.14404/JKSARM.2010.10.2.171>
- Jun, Bobae & Seol, Moon-won (2019). Apply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 appraisal methodologies of ISO 15489-1 and ISO/TR 21946.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9(4), 115-137.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4.115>
- Kim, Geon, Kim, Soojung, Youn, Eunha, & Han, Hee-Jung (2013). Research trends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3), 199-229.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3.199>
- Kim, Gyu-hwan & Nam, Young-Joon (2009).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journal artic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4), 217-239. <https://doi.org/10.4275/KSLIS.2009.43.4.217>
- Kim, Hyo sun & Kim, Ji hyun (2020). A study on the major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revisions in ISO 30301:2019 standard.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65), 397-457. <https://doi.org/10.20923/KJAS.2020.65.397>
- Kim, Hyunjung (2023).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management in the UK through articles published in archives and record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3(3), 63-87. <https://doi.org/10.14404/JKSARM.2023.23.3.063>
- Lee, Eun-Ju & Rho, Jee-Hyun (2020). Research outcomes and limitations of records and archives organiza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0(4), 129-146.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4.129>
- Lee, Jae-Young & Chung, Yeon-Kyoung (2018). Research trends of oral history in Korea: focusing on domestic academic journal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8(3), 25-47.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3.025>
- Lee, Jae-Yun (2006). A novel clustering method for examining and analyzing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a scholarly fiel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3(4), 215-231. <https://dx.doi.org/10.3743/KOSIM.2006.23.4.215>
- Lee, Jae-Yun (2013). A comparison study on the weighted network centrality measures of tnet and WNE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4), 241-264. <https://doi.org/10.3743/KOSIM.2013.30.4.241>
- Lee, So-Yeon (2011). Trends analysis of electronic records and archives research in Korea: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2), 7-31. <https://doi.org/10.14404/JKSARM.2011.11.2.007>
- Lee, So-Yeon (2013). Trends analysis of digital preservation research in Korea. *Journal of Korean*

-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2), 247-283.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2.247>
- Na, Yonwhee & Park, Heejin (2022).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archival preservation papers in Korea from 2000 to 2021.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2(4), 175-196. <https://doi.org/10.14404/JKSARM.2022.22.4.175>
- Nam, Tea-Woo & Lee, Jin-Young (2009).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2), 451-472. <https://doi.org/10.16981/KLISS.40.2.200906.451>
- Park, Heejin (2014).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 management in North America through the review of archivari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4(4), 99-125. <https://doi.org/10.14404/JKSARM.2014.14.4.099>
- Park, Zi-young (2016). Analyzing the next-generation archival description standard: "record in context" of ICA EGAD.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6(1), 223-245. <https://doi.org/10.14404/JKSARM.2016.16.1.223>
- Park, Ziyong (2017). Improving archival descriptive standar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views by archival communities on RiC-CM draft.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54), 81-109. <https://doi.org/10.20923/KJAS.2017.54.081>
- Shin, Jun-Seong (2010).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the Master's & Doctor's Dissertations in the Field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in Korea: 2001~2010. Master's thesis, Hansung University.
- Sohn, Hye In & Nam, Young Joon (2016).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focused on the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and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1), 85-110. <https://dx.doi.org/10.3743/KOSIM.2016.33.1.085>
- Yoon, Yeo Hyun, Lee, Bo Ram, Choi, Dong Woon, Choi, Yun Jin, & Yim, Jin Hee (2016). Records and information management issues and trends traced from ARMA's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4), 245-267.
<https://doi.org/10.3743/KOSIM.2016.33.4.245>